

보도 일시	2022. 6. 16.(목) 11:30	배포 일시	2022. 6. 16.(목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	책임자	팀 장 원재광 (02-2181-0265)
		담당자	사무관 이현숙 (02-2181-0268)

배달, 택배 시 폭염, 태풍 등 영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

- 배달, 택배기사 안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 영상 제공 -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과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기상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배달, 택배업 등의 종사자 안전 증진을 위해,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6월 16일(목)부터 안전보건공단의 ‘직종별 장(플랫폼) 재해예방체계(시스템)(service.kosha.or.kr)*’ 을 통해 제공한다.

* 배달, 택배업 등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누리집

○ 최근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한 택배·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므로, 폭염, 태풍 등 위험기상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.

□ 이에,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배달,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업무 시작 전에 폭염, 태풍 등 위험기상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, 근로자가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한다.

○ 이번에 제공되는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△ 폭염, △ 태풍, △ 비, △ 강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4종이며, 영향예보, 특보 등 해당 지역의 위험기상정보와 함께 날씨별 주의사항을 약 15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공한다.

※ 여름철 위험기상정보 영상(총 17개): 폭염 6개, 태풍 4개, 비 3개, 강풍 4개

- 배달, 택배업 등 근로자는 업무용 앱에서 현재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 상황과 그에 맞는 대응요령을 알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기상에 미리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향후,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겨울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, 배달,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더욱 신속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.
-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앞으로도 배달,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사전에 위험기상을 인지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나가고, 신속·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말했다.
- 붙임 위험기상정보 영상 예시

담당 부서 <총괄>	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	책임자	팀 장	원재광 (02-2181-0265)
		담당자	사무관	이현숙 (02-2181-0268)
<공동>	안전보건공단 서비스산업부	책임자	부 장	이경환 (052-7030-656)
		담당자	과 장	안선미 (052-7030-658)



<위험기상정보 영상 예시>